

# 현대중, 곧 대우조선 실사... 거제지역 반발 수위 '촉각'

거제시 “매각반대 동참 어렵지만 노동·시민단체 최대한 지원키로” 대우조선해양 노사교섭으로 진통



18일 오후 부산 중구 KDB산업은행 영남지역본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쟁의대책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시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 계획을 내세웠지만 거제지역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노조 측의 매각철회 요구로 앞으로 있을 노사 간 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거제시도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노조의 제언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재무, 회계, 기술력, 연구개발, 영업력 등에 대한 실사에 돌입한다. 아

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장실사 과정에서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 반대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이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지

난 13일 거제시청 변광용 시장 집무실을 향의방문해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17일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제시청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지만 매각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지역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집무실 집기가 파손됐지만 거제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노조 측에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매각반대에 동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거제시의 설명이다.

거제시청 관계자는 “매각반대에 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사교섭 문제와 관련 해서도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대

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해 맺은 단체협상이 이달 말에 종료돼 올해 새로운 노사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단, 올해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했기 때문에 임금교섭만 실시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교섭개시 요구를 사측에 전달함과 동시에 임금 인상을 포함해 매각철회 건까지 제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은 최대주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이해관계로 결정된 것인 만큼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매각철회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매각철회 건이 제시된다면 당장 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노사 간 교섭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교섭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재벌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대형가맹점에 끌려가는 카드사 한국GM·르노삼성도 수수료 '반기'

유통·이동통신·항공 등과 협상 잇단 초강수에 '동네북' 신세로 카드업계 “금융당국은 뒷집 뿐”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있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유통과 이동통신, 항공 등 초대형 가맹점과 본격적인 수수료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주 카드사들이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사실상 투항하면서 분위기가 대형 가맹점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주요 카드사와 재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에 반기를 든 이후 완성차업체가 또 수수료 인상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신한·KB국민·현대·하나카드 등은 현대차를 상대로 지난 1월 말 수수료율을 기존 1.8%에서 1.9%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으나 현대차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제시한 1.89%로 올리는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카드사들이 물러났다.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에서 고배를 마신 카드사들은 통신·유통·항공업계 대형 가맹점과 본격적인 수수료 인상 협상에 들어간 상태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수수료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또한 한 번 완성차업체와의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수수료 협상 결과가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가

맹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맹 계약해지라는 강경대응에도 카드사의 투항으로 끝난 만큼 ‘일단 강하게 나가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3년마다 이뤄지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을’에 위치해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유통 및 이동통신, 항공 등과의 수수료 협상은 완성차업체 만큼 카드사의 완전한 투항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통신 업계 등은 자동차 업계에 비해 카드사용 빈도가 높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마케팅 혜택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두기 어려울 것 이란 분석이다.

최근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통신사들은 지난달 카드사가 통보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카드사에 전달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협상 결과로 다소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들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유통, 통신 업체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고 카드사들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했으나 이는 항상 진행되던 일상적인 현장 점검에 불과하다”며 “설령 일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이 있었는지 점검하더라도 대형가맹점에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똑똑해진 신형 쏘나타, 카카오AI로 날개 달다

음성인식 비서 ‘카카오’ 최초 탑재 뉴스·날씨·영화·환율 등 정보 제공 에어컨·히터 등 공조장치 제어 가능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가 현대자동차의 신형 쏘나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카카오는 21일 현대자동차가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에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 기술을 탑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운전 중 간편한 음성 명령만으로도 다양한 비서 기능과 차량 제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와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커넥티비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현대자동차의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와 카카오의 AI 플랫폼인 카카오 i 기술을 접목해 음성인식으로 다양한 비서 및 차량 제어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형 쏘나타에 적용된 대화형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는 ▲뉴스 브리핑 ▲날씨 ▲영화 및 TV 정보 ▲주거 정보 ▲일반상식 ▲어학·백과사전 ▲스포츠 경기 ▲실시간 검색어 순위 ▲외국어 번역 ▲환율 ▲오늘의 운세 ▲자연어 길안내 등 10여 가지 이상이다.

운전석의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지금 핫한 뉴스 들려줘”, “내일 날씨 어때?”, “꽃샘추위 영어로 뭐야?”, “캡틴마블 줄거리 알려줘” 등을



21일 현대자동차가 선보이는 신형 쏘나타에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 기술이 탑재된다. /카카오



/연합뉴스

물으면 인공지능이 해당 답변을 찾아 말해주는 식이다.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 내 공조장치 제어도 가능해졌다. 에어컨, 히터, 바람 방향 등을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공기 청정모드 실행해줘”, “습기 제거해줘” 등

의 명령은 물론, “바람 세게”, “바람 방향 몸 쪽으로”와 같이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이에 맞춰 조절해준다.

카카오와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주요 서비스들을 계속 추가하고, 음성인식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적용 차량 범위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추교웅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 상무는 “이번 협력의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 다양한 기능 확대에 나설 계획이며, 미래 커넥티드카 기술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감성학 AI 랩 총괄 부사장은 “주행중 제약이 있는 차량 내 환경에서의 혁신을 위해 자동차 영역 내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서운 기자 yun2514@

## “인천공항 가는 길, 휴대폰 고장 걱정 NO”

삼성전자서비스, 영종센터 개소 15분 거리... 외국어 가능 직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18일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에 업계 최초로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고객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항철도 운서역 인근에 위치한 ‘영종 휴대폰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어 고객 접근성이 용이하다.

영종휴대폰센터 신설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휴대폰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종휴대폰센터에는 외국어(영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도 배치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과거에는 해외 출국 직전에 휴대폰이 고장 나면 인천에 있는 서비스센터까지 가야 했다”며 “영종국제도시에 서비스센터가 신설되면서 출



삼성전자서비스가 영종휴대폰센터를 개소했다. /연합뉴스

국 시 휴대폰 점검이 긴급히 필요한 고객은 물론 해외여행 중 휴대폰 침수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도 귀국 직후 바로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서운 기자